

## 가톨릭 간호원의 역할



부회장 최 보 배

서울대학교 간호원회

간호사의 기원을 더듬어보면 看護는 일찌기 초기 기독교시대부터 사랑과 봉사 제급타와 정신을 바탕으로한 그리스도교적 이념을 기초로하여 발달되어 왔으며, 중세를 지나 근대에 이르기까지 수도원 혹은 수녀단을 중심으로 아프고 가난한 이들에게 위로와 기도로써 복음을 전하고 몸과 시간을 바쳐서 병자를 간호해 주는것으로 신앙을 실천에 옮겨왔다. 현대에 이르러 급격한 시대의 변천으로 말미암아 사회는 간호직의 정의, 표준, 형태, 제도및 역할을 보다 폭넓고 변화된 간호 체계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간호하고자 하는 동기, 철학, 사명감과 간호시행시 가지는 성의, 정직성, 책임감은 물론 간호후에 느끼는 만족감 등을 총칭한 간호정신만은 변화하지않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깊숙히 받고 있다고보아 간호의 실제와 종교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근래에 들어 한국가톨릭 병원협회에서는 가톨릭 의료인의 역할과 사명을 강화시키기위한 방안으로 병원사목(病院司牧)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그 절대성이 대두 되어지고 있는 이시점에서 가톨릭의료인의 일인으로써 우리 간호원이 가지는 사명과 그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피력하지 않을수 없다.

간호가 인간의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추호도 흐트러짐이 없는 진지한 자세로써 우리 간호원들은 사명을 다하여왔고 앞으로도 다할것임을 자부해도 지나치지는 않을듯 싶다. 그렇다면 특별히, 종교를 가진 신앙인 으로서의 우리 간호원들은 어느만큼의 역할을 종교적차원에 근거를 두고 행하여 왔으며 과연 얼마만의 역할을 했었던가? 라는 의문을 제기 해보지 않을수 없다.

가톨릭정신에 입각한 건강간호사업은 공공의 안

정된 삶과 그들의 종교적인 신앙과, 주의 이름으로 공공에게 베풀수 있는 자선의 권리와 의무를 위해 이룩되어져야 하며 가톨릭간호원의 역할도 여기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일찌기 그리스도는 “네이웃을 네몸같이 사랑하라”(누가복음 10:27),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것이 옳으니라”(요한복음 13:14)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누가복음 10장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박애주의와 실천봉사정신과 제급타파를 주창하셨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봉사정신을 스스로, 몸소 증명해 보이셨다. 문둥병 환자들을 고치셨고(마태 8:1-4, 누가 17:12-19),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셨으며(마가 5:25-34, 누가 8:43-48), 수종병(水腫病)으로 고통하는 사람을 고치셨다.(누가 14:1-6).

그리고 간질병을 앓는 아이를 고쳐주셨으며(누가 9:37-43), 두사람의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으며(마태 9:1-8), 지체부자유인 여인을 낫게 하셨다.(누가 13:11-13). 이밖에도 한쪽손이 오그라진 사람(마태 12:10-13), 열병을 앓고있던 사도 베드로의 장모(누가 4:38-39), 중병을 앓고있던 백부장의 중(누가 7:2-10), 소경이요 병어린인 사람(마태 12:22), 두사람의 정신병자(마가 5:1-17, 누가 4:33-37)등 헤아릴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병들고 가난한자 들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내게 베푸는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간호원들이 온 정성을 다하여 병든이들을 보살핀다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된다.

더욱이 우리 가톨릭간호원들은 개개인의 생명을

보건하고 고통을 덜어주며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 하도록 도와주는 간호원의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 외에 자신의 투철한 믿음과 사명감으로 병든이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적안정을 찾도록하여 아픔과 슬픔으로 부터 해방되는 구원자로서의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 (여기에는, 죽어가고 있는 환자에게 대세를 주는 임무가 포함됨)과 아직도 의료사업의 손길이 뻗치지 않고있는 무의촌지대를 누구의 강요도 충고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돕는문제, 특히 이점에 대해서는 같은 우리민족도 상수하기를 꺼려하는 낙도에 오로지 신앙을 가지고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않는

외국인 신부나 수녀 혹은 형제, 자매들을 볼때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확고한 신앙관으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실천하는 행동을 보임으로 우리 한국땅에 하느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 가톨릭 신자가 전체 인구의 3%임) 이렇듯이 가톨릭신앙인으로서의 간호원의 역할은 어렵고도 막중하나 가톨릭정신에 입각한 간호야 말로 가톨릭의료인으로서 취하여야할 좌표인 동시에 가톨릭정신에 입각한 간호야 말로 그리스도교회의 일부분이며 또한 종교의 실제라고도 말할 수 있을것이다.



< 37 면에서 >

풍요로움을 갖춘 간호원으로서의 꾸준한 봉사는 그들 만나는 모든이에게 학교, 가정, 산업장, 보건소, 병원, 군대등지에서 펼쳐진 복음서 역할을 할 수 있을것이다.

4. 교육면, 윤리면 :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건강교육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특히 병든 인간은 가장 순수하게 건강을 갈구하는 동기가 있기에 건강교육의 효과가 가장 크며, 또한 간호원은 환자를 학생을 통해서, 그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접촉으로 여러가지 사회문제와도 직면하게 된다. 가정의 은밀한 곳도 들어나며, 종교적 결합이나, 시정해야 할 사태 (윤리문제, 부정, 비행 등)나, 악의 만연 같은 것도 볼 수 있기에, 보고 듣고 신뢰심을 얻을줄 아는 간호직에 충실한 간호원에게는 넓은 시야가 트이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이 비도덕주의 사조에서 하루 바삐 탈피 할 수 있도록 구조대 (가톨릭간호원회등)가 조직되어 연합전선을 펴서 제독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야할 것이다.

5. 관리면, 협조면 :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원

들에게 요구되는 관리면은 물품 (시설, 비품, 공급품) 관리, 의무사무관리, 인사관리로서 매우 복잡다난하며, 간호원은 가장 환자와 밀접하게 접근된 상태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중적, 횡적, '인간관계'에서 그 분위기 조정에 중추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원목실과의 연락, 협조등 여러직원들과 가정, 본당, 지역사회 기관 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맺을수 있도록 중개 역할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간호원의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톨릭 신자 간호원을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는것이다. 간호직은 유달리 지혜와 성실과 친절과 봉사가 요구된다. 참된 봉사자로서의 긍지와 정직하고 헌신적인 노력은 바로 그리스도교적인 것이며, 건강의 사도로서 환자, 가족, 지역사회에 성의를 다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환영과 인정을 받으면서 의욕과 자신을 가지고 일하는 가톨릭 간호원은 바로 "인간애를 갖고 기적을 일으키며 봉사하는 간호원"인 것이다.